

Open Doors

2020. 11. Vol. 223

박해와 선교현장

파키스탄 *Pakistan*

한국전쟁 70주년 북한기도 특집

코로나19 긴급구호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교회의 교회다움

이동현 목사(포도나무교회 담임/한국오픈도어 이사)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교회는 많은 혼란을 겪으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 좌석수에 따라서 300명 이상일 경우 50명, 300석 이하인 경우는 20명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최근의 좌석수 기준 30%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곧 다시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자 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뉴노멀 시대'라는 말이다. '뉴노멀'은 평범함을 뜻하는 Normal의 기준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평범함 보통의 라는 뜻의 Normal의 합성어로 지금 우리 생활의 기준이 변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뉴노멀 시대는 우리의 일상사회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생활뿐인가? 교회의 모습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다.

교회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 변화의 현상은 온라인을 통한 목회와 선교이다. 온라인을 통한 목회와 선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새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빈 리 목사는 "건강상의 이유, 삶의 큰 변화, 개인 신상 보호, 지역적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온라인 교회를 찾고 온라인 사역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온라인 사역은 물리적 공간과 교회적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작은 교회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온라인 사역이 최선의 선택인가? 어느 교회 장로님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매 주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예배에 접속하는 숫자를 보면, 평소 주일예배 출석 교인의 5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교회의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더라도 예배당에 이전처럼

교인들이 나올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 교회의 '주일 성수' 전통이 흔들리고 있으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필자는 온라인 사역은 전략적으로 받아들여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활용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첫째로 교회는 언제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속에서는 맞볼 수 없는 기독교의 진수와 복음의 통전성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교회는 더 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위기와 함께 변화되어왔다. 위기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됐다. 교회가 위기에 운데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고 의지한다면 위기가 지났을 때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둘째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19시대 한국 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의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63.9%, "비슷하다"는 34.8%, "더 좋아졌다"는 1.9%로 나타났다.

그럼 교회의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응답자의 60.6%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49.6%는 "사회적 약자 구제 및 봉사"라고 응답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위(moral high ground)에 있을 때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목사의 목사다움, 교인의 교인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어 코로나19 풍랑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CONTENTS



08



12



14



17



18

- 04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 - 4
- 08 박해와 선교현장 - 파키스탄 (Pakistan)
- 12 파키스탄스페셜 1 - 브라더 앤드류, 90세에 파키스탄 방문
- 14 파키스탄스페셜 2 - 신성모독법 '아시아 비비' 석방 후 이야기
- 16 현장스토리 1 - 파키스탄 크리스천 청년의 편지
- 17 현장스토리 2 - 폭탄테러에도 더욱 아름다워진 교회
- 18 사역간증 - 인도, 반개종법 허위고발로 투옥된 '가우라브' 형제 이야기
- 20 뉴스와 업데이트
- 22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캠페인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광고

OpenDoors 2020년 11월호 | 통권 223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 - 4

DAY 7.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국제오픈도어 본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추어 북한을 위한 “7일 기도” 특집 패키지를 만들어 전세계 크리스천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난 역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5일에는 4대째 내려오는 북한 성도의 강력한 간증을 소개하고, 6일에는 북한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비밀 편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오픈도어 사역자의 인터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연재하며 이번호에는 마지막으로 지하교회 성도의 간증과 편지와 기도를 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신부, 그녀가 어린양과 결혼할 것이라.
그날까지, 나는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나이다.”

- 찬양곡 “새 예루살렘”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라

평양대부흥부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1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고전13:7)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방된 지역의 한 지하교회 성도는 이를 증거해 줍니다. ‘믿음’ 씨와 그 가족은 집에 있는 성경책이 보위부에 발각되어 오지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이 그곳에서 먹을만한 식물을 찾아서 아사를 면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믿기 어려운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찾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지역에 크리스천 서클이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믿음 씨 가족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보위부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 보위부원들은 이 가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씨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서 믿게 된 이들을 돌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믿음 씨 가족은 어느 날 기적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사역자에게 연결되었고, 지금 우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믿음 씨는 언니에게 쓴 편지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삼촌으로 언급하고, 정부는 호랑이로, 성도들은 토끼로, 기도는 돌기둥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퀴즈를 달리기로 표현했고, 오답은 땅에 넘어지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래 편지를 소개합니다:

꿈 속에서라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언니,

시간이 바람 같이 흘러 가네요. 벌써 연말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녀들은 다 잘 있지요? 가족은 어떠세요? 건강하신가요? 저는 언니에 대해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고 언니가 너무도 보고 싶네요. 언니의 기도와 도움으로, 그리고 삼촌의 은혜로, 우리는 잘 있어요. 지금은 숲에서 식물을 거두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재난들이 우리를 피해간 것 같아요. 이곳으로 추방되어 왔지만, 삼촌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조금이지만 남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제때에 비가 내리고 해가 비취며, 우리 또한 삼촌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언니는 항상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삼촌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이 말을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이제 나도 그 뜻을 이해해요. 말씀으로 사는 거 같아요.

이제 나는 하늘 아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 생각하니 마음도 훨씬 자유로워요. 밤마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사랑하는 언니가 생각나요. 언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게 느껴져요. 언니 친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격려해주던 게 기억나요. 그 친구분은 자기도 그리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일도 도와주셨지요. 그 친구분은 가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또, 내가 받기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언니는 내 언니이지만, 어떻게 이 모든 걸 내가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넘치는 사랑과 관대한 베품에 대해 그저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언니가 기뻐하는 거, 삼촌도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정말 기적이지요. 단지 우리 걱정은 호랑이들이 계속해서 토끼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지요. 호랑이들이 토끼들을 다치게 할까 걱정이 되요. 큰 스트레스를 주지요. 그러나 말하건대,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환난은 삼촌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기 가족들이 달리기 대회를 하려고 모였어요. 가장 빠른 사람은 상으로 우리가 준비한 식량 바구니를 받는 거예요. 마태가 1등을 해서 바구니 3개를 받았고, 마가는 2등을 해서 바구니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3등을 해서 우리 가족도 바구니 하나 받았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촌의 편지를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어요. 달리다가 사람들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크게 웃었어요. 아주 재미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혀진 외딴 곳에 사는데, 세상 누구와도 떨어져서 살지만, 서로 돕고 진짜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서러워하지 않지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도 안나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어떻게 잘 꾸려가고 있어요.

이게 다 삼촌의 은혜요 은혜로운 사람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삼촌의 넘치는 사랑, 기쁜 마음. 우리는

이걸 세상 어떤 것보다 안 바꿀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 맘을 바꿀 수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에요.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삼촌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은 우리가 버려진 삶이고, 죄받은 땅에서 산다고 말하겠지만, 사람들은 여기가 축복받은 땅인 줄은 모를 거예요. 나는 언니가 한 말을 믿어요,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이에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잘 해주실 줄 알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런 격려의 말이 진실인걸 믿어요.

우리 삼촌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보호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출애굽 책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이요. 이 땅에 있는 이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고 문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의 부르심은 자녀들이 삼촌에 대해 공부하도록 돕고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의 부르심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어 기아를 극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처음에, 남편은 정말 마지못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남편은 변했어요. 아주 좋아서 하고 있답니다! 나는 삼촌의 이름으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마치 삼촌 책에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된 것처럼 이요. 언니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나는 언니가 삼촌이 보낸 이 시대의 요셉처럼 느껴져요. 나 또한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몇 가지 요청들:

- 1) 기도할 때마다, 호랑이에게 붙잡혀서 짝소리도 못 내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토끼들에 대해 삼촌께 말씀드려 주세요.
- 2)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실 때, 십일조는 떼시고 나머지만 주세요. 물론 여기서는 그게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삼촌이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고 믿어요.
- 3) 부디 선물과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 바깥의 친절한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해주세요.
- 4) 무엇보다도, 늘 건강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언니, 모든 언니 가족 다 늘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요. 부디 몸조심하세요.

사랑하는 동생이.

추신. 보내주신 것 다 잘 받았어요.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 씨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억해주시고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처럼, 오픈도어 북한사역을 시작한 피터 씨도 똑 같은 증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열렬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려는 그러한 끔찍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성경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고 정금 같이 만드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거인들로 자라나서,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이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성도들을 언젠가는 불러내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전세계의 다른 박해받는 그리스도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견고히 서서 세계선교에 헌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피터 씨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북한의 성도들을 섬기는 한 오픈도어 사역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 개인승배가 무너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 전역에서

일어나서 북한이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또 다른 현장 사역자는 선포합니다: “북한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대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자유롭게 신앙과 간증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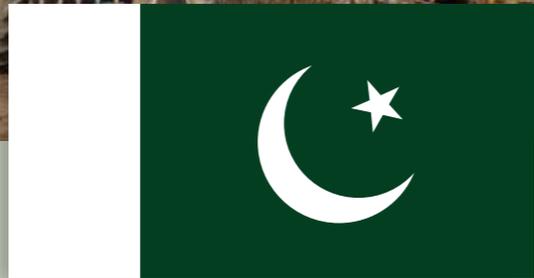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한숨을 기억하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알아요.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사탄의 세력이 점점 더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삶과 죽음 가운데 지켜온 견고한 믿음과 함께,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본보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적인 영웅들의 간증들이 세상에 드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불을 붙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피터 씨와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의 간증을 천천히 다시 읽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오픈도어 사역자들에게 북한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똑 같은 꿈을 심어주시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북한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오기를 열렬히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파키스탄 Pakistan



인구 : 204,596,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교(96.4%)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4,015,000명(2.0%)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5위, WWL2019- 5위

기독교박해 지수 : 88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의 탄압, 파벌과 소수민족 적대감,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교파적 보호주의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1947년,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독립하면서 이슬람국가 가 되었고 크리스천 소수공동체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제도화된 차별을 받는다. 파키스탄의 악명높은 신성모독법은 종교적 소수(무슬림 소수와 포함)를 타깃으로 하지만 전체적 인구비율로 볼 때 특히 크리스천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임란 칸(Imran Khan)수상이 공개적으로 신성모독법을 변호했고, 자기에게 소수공동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봐서 향후 몇년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칸 수상은 특정 과격파 이슬람 단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표방하고, 파키스탄 군대는 나쁜 탈레반과 좋은 탈레반을 구별한다고 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에는 수없이 많은 이슬람 단체들이 있고, 금지된 단체는 재조직하거나 이름을 바꾸어 다시 출현한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파키스탄에 서로 다른 규모와 영향력의 이슬람 그룹들이 65개나 있다. 정부와 정치가, 군인들 모두 이슬람 지도자들과 이슬람 단체에 구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슬람의 크리스천 박해를 막기 어렵다. 전통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예배와 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들도 감시를 받고 정기적으로 폭탄테러의 타깃이 되어왔다.(최근의 대규모 폭탄테러는 2017년 12월 17일에 Quetta에서 발생)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사적인 영역** :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이슬람의 기존 가르침과 가치체계에 대한 반대나 도전으로 보여 위험하다. 페이스북과 같은 모든 개인적인 발언도 신성모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크리스천이 아닌 파키스탄 크리스천이 당장 필요한 개인적인 용도 이상의 기독교 자료를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무슬림에게 선전하고 전도할 도구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기독교 변증적인 내용이 있는 책들은 반국가, 반이슬람으로 간주되어 소유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MBB(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들)가 기독교 자료를 공개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독교 상징물이나 이미지들을 보이게 지니는 것 또한 위험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기독교 이미지를 붙였다가는 차량파손을 당할 수 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거리에서 침뱀음을 당하는 예들이 있다.

• **가정 영역** : 작은 마을이나 외딴 지역에서 모든 크리스천 가정은 자녀들을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의 이슬람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압력을 받는다. 대다수의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슬람으로 '돌아오라'는 압력을 받는다. 이슬람 의식과 행사에 참가하라는 압력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이 밖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 를 준다. 신성모독법에 고발당할까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도록 가르치기도 한다. 크리스천 아이들은 무슬림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과 같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급우들로부터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 일부 교과서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다. 공립학교도 코란을 암기하는데 대한 보너스 점수를 준다.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사회적 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한다는 신분적 배경 때문에도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차별을 당한다. *비무슬림 부부 중 아내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이 무효가 되고, 자녀의 법적 지위도 없어진다. 자녀가 합법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 뿐이다. 무슬림 부부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자녀는 법적 지위를 잃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

• **지역공동체 영역** : 크리스천들은 국가에 의해 감시

를 받는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보고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에 의해 신앙을 버리라는 압력을 받으며 외국인들조차도 '판차야트'라고 불리는 마을위원회에 불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라는 강요를 당한 사실이 보고될 정도이니 파키스탄 크리스천들과 개종한 이들에게는 그 압력이 훨씬 더 심하다. 직장에서도 압력이 심하여 크리스천들은 이슬람으로의 강제개종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크리스천들은 청소나 물운반과 같은 낮은 직업이 많은데 이마저도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청소회사들이 점점 더 무슬림만 고용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져 공용시설들을 무슬림과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들이 많다. 병원, 약국, 기타 시설들의 복지혜택도 크리스천에게는 거부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종종 엄청난 비용을 요구받는다. 이슬람 기금으로 제공되는 무료 의약품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병동에서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과 같이 있기를 싫어해서 크리스천들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 **국가영역** : 이슬람공화국인 파키스탄은 1973년 이슬람헌법을 채택하고 민법으로 샤리아법을 도입했다. 헌법 자체가 유엔인권선언18조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차별은 정부와 정치, 사회 일반의 모든 단계에 편재되어 있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크리스천들은, 정부 또는 압력단체들에 의해, 신성모독 또는 다수 종교 모독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다. 최근의 이슬람화 과정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악명높은 신성모독법은 1986년에 도입되었다. 2010년 보고자료에 의하면, 1,031명이 신성모독법으로 수감되어 있는데 그 중 801명이 소수파 이슬람 소속 무슬림들이고, 나머지 230명 중 162명이 크리스천이었다. 잘 알려진 아시아 비비의 신성모독죄에 대해 대법원이 2018년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같은 해 12월 한 하급법원에서 두 명의 크리스천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크리스천의 공적 의견이나 견해는 무시당한다. 종교사무국은 예산부족과 독립적 의장의 부재로 소수 종교자들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소수자 인권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위원

회와 '종교간 화합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을 위해 활동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교회영역** : 교회활동은 정기적으로 감시를 당한다. 많은 교회들에 정부가 파견한 경비요원들이 있다 이들은 감시요원이기도 해서 정기적으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내용은 급진적 이슬람 단체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이슬람 급진단체들 모두 교회에서 반정부 또는 반이슬람 적인 내용을 가르치는지 감시한다. 교회 지도자들과 크리스천 사역자들에게는 그들의 활동이 당국과 이웃의 압력단체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경고들이 보내진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외부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교회건물은 요새처럼 높은 담장과 좁은 문들로 지어진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교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교회 공격들이 계속 있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등록허가 절차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2015년10월1일 도입된 NGO 법으로 정부는 원하는대로 NGO를 폐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 NGO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폐쇄의 위협에 직면한다. 2018년10월 파키스탄 정부는 18개 NGO단체들에 60일내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파키스탄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 중에는 월드비전도 포함되었다. 이 정책은 지금도 여전하다. 파키스탄 성서공회 외에는 인쇄기를 갖기 어렵고 성서공회의 활동은 긴밀하게 감시를 당하며 출판되는 모든 성경은 추적 가능한 시리얼 번호가 매겨진다. 또한 원래 13개 기독교 채널이 있었는데 2016년 10월부터 단 2개 채널만 허가가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교회는 2016년의 '전자 범죄 예방법'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수단마저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

WWL2020 파키스탄 박해보고

(2018년11월1일~2019년10월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20 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231 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71 명
공격받은 교회 수	58 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200 건

WWL2020 기간 박해 사례

- 2018년 12월, 라호르의 한 지방 법정에서 크리스천 형제인 카이사르 아유프와 아문 아유미, 2010년에 고발당한 신성모독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 2019년 3월 카라치 인근마을 무슬림 부부가 크리스천 자매들이 꾸란을 더러운 세면대에 버렸다는 허위 사실을 고발, 성난 무슬림들이 교회와 기독교 건물, 200여 크리스천 가정 공격했다. 신성모독법 아래 교회와 크리스천 집들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 2019년 5월, 한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크리스천 근로자를, 다른 집 일도 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이는 파키스탄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알려지지 않은 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9월에는 라호르에서, 아미르 마시가 경찰서에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 크리스천 살해는, 특히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는 편잡 지방과, 나라 전체 도처에서 일어난다.

파키스탄 개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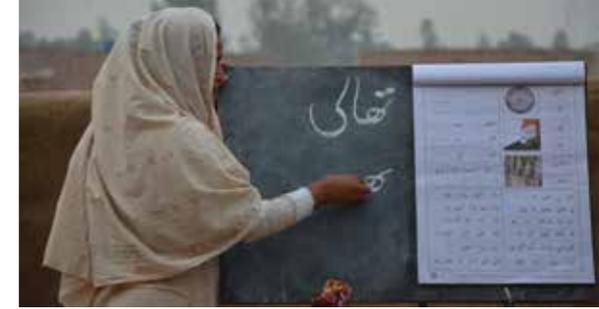
교회가 유세비우스의 4세기 기록에 의하면, 사도 도마와 바르톨로뮤가 인도와 파르티아(현대 이란)에 위임을 받았다. 두번째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무렵(AD226년), 북서부 인도, 아프가니스탄과 발루치스탄(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동방교회의 감독들이 있었고,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이 같이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도대륙에 대한 로마가톨릭의 선교는 16세기에 포르투갈인들이 들어 오면서 시작되었고, 1579년 경에 라호르(현재 파키스탄)에 정착하여 지속되었다. 현대적으로는 18세기 말, 19세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확고하게 정착되었고 그 후로 계속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점점 증가하는 압력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리랑카 또는 태국과 같은 나라들로 이주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0명(0.0%)
카톨릭	1,118,000명(27.8%)
개신교 기성교단	2,517,000명(62.7%)
독립교단	605,000명(15.1%)
무소속	20,500명(0.5%)
이중소속	-246,000명(-6.1%)
합계	4,014,500명(100%)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와 후원

- 파키스탄은 이슬람공화국으로 가장 최근의 이슬람화 정책은 1980년대 시행되었고, 현재 수많은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파키스탄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기도해주세요.
-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MBB)이 가장 심한 박해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들은 그들을 변절자라 여기고,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은 그들이 공동체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700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매년 유괴/납치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성폭력을 당하며 공동체 내의 무슬림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강제로 다시 무슬림을 따르게 됩니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크리스천 여성들과 소녀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오픈도어는 현지 교회와 함께 계속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사역 자체의 민감성과 더불어, 파트너와 사역 대상자들에 대한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명도 특정하지 않고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근처 국가들을 통틀어 '걸프 지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활동내역 등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파트너 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옹호사역과 여성사역, 어린이사역,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구호사역 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특별 프로젝트 사례

아루나는 16살까지 전통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생계를 위해 청소일을 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기 위해 6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루나의 아빠는 시 소속 청소부였고 집에서 양조한 술에 중독되어 간경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는 아루나와 접촉하여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왔고 마침내 아루나는 글을 배우고 글자교실 교사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아루나는 그녀 자신처럼, 자신들에게 '소외자'라는 딱지를 붙인 성·종교적 편견과 힘겹게 싸워온 여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루나는 편잡의 한 시골 공동체에서 글을 가르치는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날이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어요. 제 학생들에게 글 읽기를 가르칠 때면, 저는 마치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작품에 색깔을 더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이곳에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글을 못 읽는다면 무엇이 신화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겠죠."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

"구주 예수님, 납치와 강간, 강제결혼, 강제개종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여성들과 소녀들을 보호해주세요.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고통 받는 이들 편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들의 삶에 나타난 주님의 임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국경도, 감옥의 철장도, 어떠한 닫힌 문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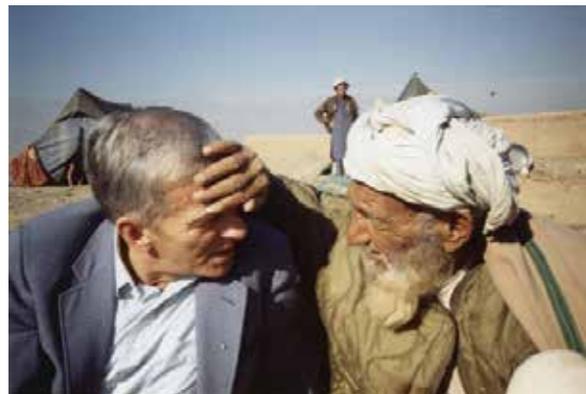


브라더 앤드류, 90세에 파키스탄 방문 “우리가 ‘그 책’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파키스탄 상황이 민감하여 모든 구체적인 정보는 제외합니다

오픈도어의 설립자, 브라더 앤드류는 90세의 생일을 앞두고 그가 사랑하는 오랜 친구들이 있는 박해국가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이 될 ‘현장 방문’(Presence Ministry)이었습니다. 그는 몇 십 년을 함께한 파키스탄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예배당의 봉헌식에 참석했습니다. 봉헌식에는 파키스탄 순교자의 가족들이 브라더 앤드류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게 너무나 기쁩니다. 마귀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주지 않을 거예요.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을 축



1988년 파키스탄 페샤와르 난민캠프에서의 브라더 앤드류

하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우리 나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예배당 건물에 감탄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건물이 커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가는 것입니다.”

한 현지인 성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브라더 앤드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듯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전을 이루어주신 열매를 봅니다. 생수가 열망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전입니다. 브라더 앤드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남은 자들을 강건케하고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기쁨, 소망,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길 원해서 조국 네덜란드에 가서 교회들에게 박해의 살육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도록 도전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담요를 이루는 한 울의 실이라고 격려 해주셨어요. 이 기도의 담요는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열방을 덮는 담요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여러 현장 소식과 사역 소식,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받는 박해 소식들을 듣고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에 대해 현지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요한복음 15:13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길이예요. 우리, 브라더 앤드류의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을 위해, 브라더 앤드류는 계속해서 ‘가라’, ‘위험을 감수해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파키스탄 교회를 일깨우는 일이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파키스탄 교회가 일어나서 선포하고, 서남아시아의 교회를 섬기는 일 생생한 주님의 현존이 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일, 깨우고 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어린 아이 한 명이 어떻게 성경을 받았는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센터에

돌아와서 보니 여러분이 여기 아름다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이 작은 소년도 나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여정에 올라 있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 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이 성경을 누군가 다른 이에게 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가르치고, 멈추지 마세요.”

브라더 앤드류가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굿바이, 브라더 앤드류...우리가 다시 만날때까지 하나님이 미래의 50년 동안에 하실 일들로 인해 기뻐할 때까지!”

브라더 앤드류의 말씀은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성경)’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책’ 때문에 여기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을 주신 분 때문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여러분의 방식대로/있는 곳에서 예수가 되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2012년 파키스탄 시알코트에서 브라더 앤드류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최초의 여성사형수 '아시아 비비' 석방 후 이야기

- 본명 Aisha Noreen
- 2009년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으로 피소
- 2010년 사형 선고
- 교회와 국제인권단체들 구명운동 전개
-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 무죄판결에 대한 이슬람극단주의자들 항의로 석방 지연
- 2019년 석방(1월)
- 석방 후 신변위험으로 극비리에 해외 피신
- 2020년 책 "Enfin Libre(마침내 자유)" 출간
- 현재 캐나다 거주

사건 경위

2009년 당시 아시아 비비는 파키스탄 라호르 시에서 남동쪽으로 65킬로 정도 떨어진 한 마을(Ittanwala)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노동자였습니다. 그 마을은 편잡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의 하나로 과수원과 농장들로 가득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6월로, 아시아는 마을의 무슬림 여인들과 같이 베리열매들을 따고 있었습니다. 땀병에서 4시간 정도 일하고 목이 마르자, 같이 일하던 무슬림 여인들은 아시아에게 물병을 주면서 가서 우물에서 마실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오는 길에 물을 한 모금 먼저 먹었고, 이 사실에 그 무슬림 여인들은 분노하여, 아시아가 크리스천이라 부정하기 때문에 같은 컵으로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경찰이 아시아의 집에 들이닥쳐 그녀가 선지자 무하마드를 모욕한 신성모독죄로 고발했다고 하며 집에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집 밖에는 성난 무슬림 군중들이 몰려와 있었고 끌려 나온 그녀를 구타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고 신성모독법으로 기소했습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의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아시아 비비'가, 석방된 지 1년만인 올해 1월, 프랑스 언론작가(Ane-Isabelle Tollet)와 같이 쓴 책(불어 Enfin Libre)을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구명을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던 만큼 프랑스에서 열린 이 책의 출판기념회에도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오픈도어도 그녀를 만나 후원자들의 선물을 전달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래 아시아 비비가 나눈 이야기 일부를 전합니다.

아시아 비비가 옥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간수들에게 받는 야만적인 처우였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목에 쇠목걸이를 씌우고 열쇠로 잠근 다음 긴 쇠사슬을 늘어뜨려 놓았다가 이동할 때 간수의 손목에 차고 있는 수갑에 쇠사슬을 연결해서 개처럼 끌고 다녔던 것이예요. 간수는 열쇠를 가지고 목에 두른 쇠목걸이를 마음대로 조일 수 있었어요. 목이 조여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비비는 감옥에서 그러한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기독교 신앙 덕분이었다고 BBC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것을 항상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신앙을 바꿔라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니요, 나는 내 신앙을 가지고 감옥에 있겠어요.'라고 했어요."

"나는 남편으로부터 전세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교황님도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은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전세계가 저의 불행이 끝나기를 기도해주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전세계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풀려나게 된 거 같아요"

아시아 비비는 자기를 도와주던 두 파키스탄 정치인들이 살해된 소식을 옥중에서 들었을 때의 슬픔도 회상했습니다: (주:샤바즈 바티 Shahbaz Bhatti 장관과 살만 타세르 Salman Taseer 주지사는 아시아 비비의 구명을 위해 노력하다가 각각 피살됨-타세르 전 주지사를 살해한 범인은 그의 경호원으로 그가 신성모독을 옹호했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함)

"많이 울었어요. 감옥에서 일주일 넘게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만 생각하면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져요. 그분들이 보고 싶어요."

아시아 비비는 자기를 죽이라고 요청한 이들에 대해 어떤 미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모두 용서했어요. 마음 속에 응어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떼어놓고 감옥으로 가야했으니 그동안 인내하는 법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 비비는 조국 파키스탄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풀어준 것도 우리나라예요. 그 사실이 나는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나라를 떠난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 떠났지만, 저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픈도어 사역자는 아시아 비비와 교제를 마치고 헤어진 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잘 지내고 있고 고통에서 잘 회복되고 있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용기 있고 담대해 보이지요.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회복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유와 무조건적 사랑과 기도의 후원과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스토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故 살만 타세르 주지사의 아들 산 타세르(Shaan Taseer) 씨는, 2019년 미국의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성모독죄 희생자'가 된 아시아 비비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오늘날 파키스탄에는 여전히 신성모독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200여 명의 아시아 비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비비가 투옥되어 있는 동안, 어느 박해지역의 성도들은 매일 새벽 1시에 모여 동그랗게 둘러서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아시아 비비를 올려드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성모독법으로 지금도 파키스탄 감옥에 있는 200여 명의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 드리고 기도해주세요!

파키스탄, 한 크리스천 청년의 편지

“이것은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으로 불리는 거의 1,500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이미지출처: Quora

어느 추운 날, 교회로 가는 길 한 모퉁이에 푸드카트(포장마차)가 있는 것을 보고 따뜻한 걸 좀 사먹으려고 다가갔습니다. 렌틸콩 덮밥 한 접시를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지갑을 찾는데, 포장마차 주인이 저의 얼굴을 보더니 “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 아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교회 교인임을 알아봐 준 것이 반가워서 얼른 “네 맞아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장마차 주인은 주머니 음식접시를 엮어버리면서 가서 비닐봉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접시에서 음식을 먹게 할 수 없어. 내 접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내 접시를 당신이 더럽히게 할 수는 없지.”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음식을 거기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프고...또 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파키스탄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아직 26세의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근처에 우리집이 있었지만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주위에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

으셨다는 걸 아는데도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교회 관련 일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걸 들어요. 나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의 마음 속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지만, 여전히 깊은 상처가 되요. 이번 ‘접시 사건’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100가지도 더 있죠... 결국,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내가 이 ‘접시 사건’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자,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매일, 모든 사람이 나한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곤 했어.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갈 때, ‘음식 위로 숨을 쉬지 않게 조심하라구, 더럽히지 말란 말이야.’라고 말하곤 했지.”

목사님은, 그 레스토랑이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도, 자기에게는 깨지고 낡은 한 접시만 사용하게 했고, 오래된 잼 병을 물컵 대신 쓰게 했었다고, 그것이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심지어 목사가 된 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잖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항상 박해가 있을 걸 알지. 나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목사님의 간증은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 때 나의 치유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절당하고, 빼앗기고, 외로운 이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것은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으로 불리는 거의 1500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은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폭탄테러에도 더욱 아름다워진 교회

걸프지역에서 사역하는 30대 의사 아지즈가 폭탄테러를 당한 걸프지역의 한 교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한 후 전해온 감동적인 보고를 요약해서 짧게 전합니다. 아지즈는 오픈도어의 후원으로 전문의료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극심한 박해지역은, 현지교회와 성도들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명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사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지즈는 피해 환자들을 만날 때 휴대폰을 아예 안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 피해 교회를 위해, 아지즈의 의료사역을 위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장한 테러범들은 여러 방향에서 교회건물에 접근했다. 테러범 중 한 명이 교회 담을 넘어 교회 문을 열어주었다. 테러범 한 명이 교회 본당 근처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다른 한 명은 발목이 부러져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소수의 교인들만 목숨을 잃었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예배당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고 있던 형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형제 때문에 테러범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그 사이에 교인들은 뒷문으로 피할 수 있었다. 오픈도어의 후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 형제는 결국 가슴에 총탄이 박힌 채로 발견되었다.

예배당 바닥에 흩어진 성찬식 잔과 빵이 그날 일어난 참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건물 콘크리트 바닥과 카펫은 화가가 물감통을 쏟기라도 한 듯 검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순교자들과 부상자들의 피와 성찬 포도주가 완전히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라고 아지즈는 전했다. 아지즈는 테러가 일어난 그 주일에 교회를 다시 방문했

다. 테러로 인한 잔해들이 치워졌지만 복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왔고, 그 중 상당수는 붕대를 두르고 목발을 짚고 있었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교인들은 테러가 발생했지만 주일에 집에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교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라고 아지즈는 설명했다:

“이런 비극적인 테러공격에도, 이곳 형제자매들은 주님을 선하시며 따를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 공격이 있기 전에도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목숨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부상당한 교인들이 비틀거리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물론 고통과 슬픔은 현실이고, 늘 존재하지만 이곳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 크지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순교자들이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겪고서 더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묻는 질문에 그 교회 사역자는 말했다:

“예레미야 4장 27절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수많은 테러 공격으로 이곳이 황폐하게 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로 인한 빛과 소망이 항상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겐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인도, 반개종법 위반 허위고발로 투옥된 ‘가우라브’ 형제 이야기

반개종법 아래, 전도는 물론이고 신앙표현, 구제, 자선, 교육, 치유, 주일학교 등 모든 활동이 기독교 개종을 강요했다는 허위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와 같은 허위고발로 결혼한지 두 달 만에 경찰에 잡혀가 끔찍한 투옥생활을 하다가 오픈도어 옹호사역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는 수많은 인도 크리스천들 중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인도 및 여러 나라에서 반개종법으로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이 법이 남용되지 않기를, 인도의 다른 주들로 더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해주세요. 현재 인도 9개 주에서 반개종법이 통과되었고, 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타와 더러운 잡일들

처음 며칠 동안, 매일 같이 저는 불려가서 심문을 받고, 발길질과 주먹질, 그리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굵은 막대기들을 들고 수시로 때리며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받아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가?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저를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그런 심문이 약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되곤 했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온 몸에 멍이든 채로 돌아와 할당된 잡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개종시킨 혐의로 잡혀온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들이 할당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청소 도구 없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여러 다른 힘든 일, 하수구 청소와 같은 더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배식이 되었는데, 음식은 보기만 해도 식욕이 떨어지도록 고의로 맛없고 질척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점심 후에 다시 수감자들이 전부 할당된 잡일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는 중범죄를 짓고 수년째 수감되어 있는 험악한 형사범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개종 행위로 잡혀온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별주라는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들어간 첫날, 어떤 수감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다가 잡혀온 놈이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댔고, 그때부터 매일 나는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꼬

나는 우리 마을에, 극단주의 단체들의 반대와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해왔습니다. 그날도 한 교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 몇 명이 와서, 설명도 없이, 저를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누군가가 내 교회 활동과 전도활동을 경찰에 알렸던 거죠. 저는 사기수단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제가 사람들을 유인한다고 비난하는 거짓 고발 건들이 더 있었어요.

저는 제가 죄가 없음을 알지만 무죄를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도 알았어요. 같은 교회 동료 2명도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구금되면서 나는 무죄가 증명되면 당연히 나올 줄로 생각하고 곧 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리를 잡아 나를 때리고 발로 차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항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 있게 해달라고 사정만 했습니다.

감옥의 창살 뒤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웠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두 명의 다른 친구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소망을 잃고 낙담했습니다.

비밀기도의 힘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내 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잡혀 들어온 후, 처음으로 마음 속에 안정감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조그만 신약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몰래 그 성경책을 주시는 순간 나는 나의 모든 어려움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목사님과 저와 제 친구들은 목욕실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내가 내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에 대해 보석 신청을 했지만 충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심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지역 극단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고의로 미루었던 것으로 압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던 일일기도회는 일주일만에 누군가의 고발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믿음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잡혀들어온 한 친구는 내 앞에서 종종 울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 매일의 고문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자기는 자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격려하기가 어려웠지만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나 자신이 믿음 속에 더 힘을 얻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 기도회가 감옥의 간수들에게 발각된 후에, 나는 더 많은 심문을 받게 되었고, 감옥 속에서조차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면서 주님



과 더 많은 교제 시간이 생긴 것을 깨닫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자유

투옥된 지 4개월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투옥은 아내에게도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체포되었을 때가 결혼한지 두 달 밖에 안되었을 때거든요. 우리는 서로 쳐다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갔을 때는 더 많이 울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법정에서 우리의 무죄가 증명되는데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와 내 친구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아무도 우리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에 약간의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저기서 임시노동을 하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셨어요.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우리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재판과정에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아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나와 두 친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오픈도어 파트너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말리, 스위스 여성선교사, 이슬람극단주의 단체에 5년간 억류 끝에 처형



아프리카 말리에서 스위스 여성 선교사, 베아트리스 스톡클리(Beatrice Stockly)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9월 중에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0대 후반의 독신 여성인 베아트리스 선교사는 2000년부터 말리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2012년에도 납치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 1월에 말리 북부지역 팀북투에서 납치되었습니다. 스위스 외무성은, Jama'at Nasr al-Islam wal Muslim (JNIM)이라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의 납치범들에 의해 스톡클리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죽음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해외기부금법' 개정으로 기독교NGO 규제 강화

인도에서 새로 개정된 '해외기부금법' FCRA(Foreign Contribution Regulations Act)이 9월23일에 통과됐습니다. 주로 NGO들의 해외후원금을 통제하기 위해 입안된 이 법은,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현지에서 NGO로 등록된 것을 고려할 때, 특별히 기독교 선교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은 오랫동안 국제 단체들과 교회들과 결연하여 활동해왔고 인도 밖의 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골자는 운영비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고, '후원금을 다시 나누어 후원하는 것' (sub-grant)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300개 이상의 NGO들에 대한 FCRA라이선스가 취소되었는데 이제 더 쉽게 취소될 전망입니다.



인도, 2000~3000명의 폭도들이 반기독교 선동과 크리스천 가정집 파괴



인도 차티스가르 주의 싱간푸르의 한 마을에서, 9월22일, 23일에 크리스천들이 외국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을 주민들은 성도들의 집들을 공격하여 부수고 집안의 물건들도 파괴했습니다. 현지 성도들에 의하면, 2000~3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몰려왔습니다. 경찰도 이들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은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서 우리 신들이 우리에게 분노했다! 우리 신들이 더 이상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구!' 라고 소리치며 성도들을 폭행했고, 약 75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란, MBB형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신 죄목으로 80대의 채찍질을 당하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란인 크리스천, 요한(본명:모하마드 Mohammad Reza Omidi) 형제가, 성찬식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80대의 채찍질 형을 받았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인데, 이란은 개종한 크리스천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형벌을 적용합니다. 요한 형제는 가정교회 멤버라는 이유로 지난 2년간 수감되었고, 한달 전부터는 특정 도시(Borazjan)에 유배되었습니다. 2년간 유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월10일, 당국은 유배지에서 1,000km가 떨어진 고향 라시트(Rasht) 시까지 형벌을 받으러 오도록 요한 형제를 소환했고 14일에 채찍질 형을 집행했습니다. 요한 형제는 2013년에도 다른 가정교회 성도와 함께 같은 이유로 같은 형벌을 당했습니다.



미얀마, 조용한 어린이캠프,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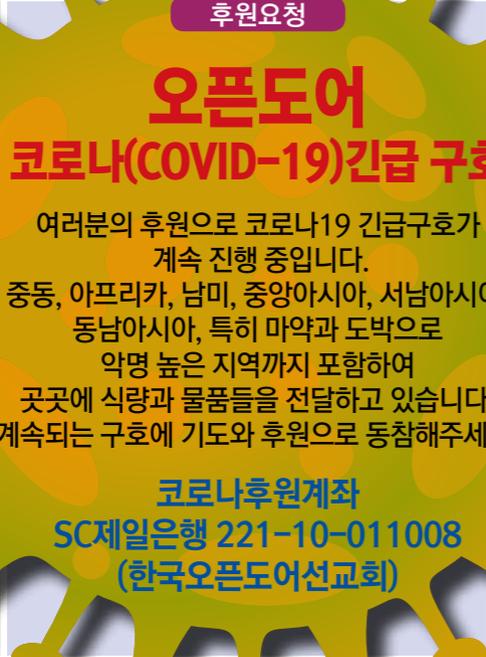


우렁찬 찬양과 신나는 활동들로 떠들썩하던 어린이 캠프가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용히 열렸다고 미얀마의 한 마을 오픈도어 파트너가 전했습니다. 불교도인 이웃 주민들은 시끄러운 어린이캠프는 마을의 안정을 해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캠프 리더는, 주민들과 정부당국이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 운동장과 스포츠홀 등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 활동만 제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이 여러가지 활동 대신 조용히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며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교회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어린이들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방글라데시, 코로나19 가운데 더 많은 영혼 구원, 15명 세례식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방글라데시 북동부 마을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며 9월에 15명이 세례를 받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는 개인성경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오픈도어의 성인글자교실에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선물로 받은 기쁨이 더욱 큼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는 올해 2월에도 10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 10명이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코로나19 봉쇄가 시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300 기도용사" 가 되어주세요!

매주 전세계 박해받는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부탁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과 승리의 소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 문의/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dsk@opendoors.or.kr
www.opendoors.or.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